

ESG 경영 사례

ESG 선도기업 SK에코플랜트(주)
- 글로벌 대표 환경기업으로 도전 -

[ESG 경영 사례]

ESG 선도기업 SK에코플랜트(주)



글로벌 대표 환경기업으로 도전

2021년 5월, SK건설은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심겠다'는 포부와 함께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77년 창립 이래 40년 넘게 건설시장에서 안정적 규모를 유지해 오던 대형 건설사가 목표를 변경하여, 전세계가 직면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사명 변경 후 불과 2년 만에 SK에코플랜트는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내 1위 종합환경기업, 글로벌 1위 연료전지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순환경제를 디자인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의 '순환경제 디자이너' 라는 비전을 갖고,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림 1〉 SK에코플랜트 순환경제 Mission



ESG 경영 추진체계 구축

이러한 환경기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의 핵심 비결은 SK에코플랜트의 선도적인 ESG 경영활동에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관련 조직기능을 통합하고 CEO 직속의 ESG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관련 안건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ESG 경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 ESG 추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ESG 경영 목표 및 방향성을 수립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 자회사 ESG 추진협의체



아울러 2022년 7월,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원칙과 행동규범을 선포하였다. SK에코플랜트와 모든 자회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ESG 경영체계와 구성원의 행동기준을 공식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Driving to Zero’라는 ESG 슬로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보건, 환경, 품질의 5가지 중점영역에서 리스크 ‘제로화’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10가지 ESG 경영원칙을 발표하여 CEO부터 모든 구성원까지 동의와 참여를 다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3〉 ESG 경영원칙과 행동규범





2040 Net Zero 달성을 위한 행보

다양한 ESG 이슈 중 ‘기후변화 대응’은 가장 해결이 시급하고 전 지구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SK에코 플랜트는 사업전략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환경 사업과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하였다. 특히 Waste Zero,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에너지, 솔루션(건설) 분야별 청정기술 확보 및 개발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과 투자, 전사 운영 과정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한다.

2021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아 ‘2040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공표하였고, 2023년 2월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을 통과했다. Net Zero 이행 과정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하여 2022년에는 2년 연속 리더십 등급(A-)을 획득하고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4〉 현장 탄소감축 프로그램 포스터



전사적인 Net Zero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는 환경정책 개정 및 사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넷제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CEO와 각 조직의 KPI에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et Zero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K에코플랜트는 각 현장에서의 탄소감축에도 힘쓰고 있다.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추출 원단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유니폼을 제작하여 현장 구성원에 제공해왔다. 또한 K-EV100⁹⁾에 참여하며 현장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지붕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저탄소 자재 사용, 노후 건설장비 사용 최소화, 빗물 저금통 설치 등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맺음말

ESG 경영은 건설업계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고 있다. 환경파괴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건설업에서 ESG 가치를 어떻게 잘 연결할지는 이미 많은 건설사 CEO들의 고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사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미 ESG를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다수 있지만 SK에코플랜트는 좀 더 본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ESG 가치 제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과 타 산업의 융합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로서 축적한 시공·엔지니어링 역량이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기존 기술인력들의 활용 방법 등 SK에코플랜트의 도전 사례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ESG 경영활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결국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김형욱(SK에코플랜트·Kimhw@sk.com)

9)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차량 사용을 독려하는 환경부 주관 프로그램.